coupang newsroom

쿠팡플레이 금주의 추천작: 6월 3주 차

2025. 6. 12.

쿠팡플레이에서 볼만한 추천작을 각 카테고리별로 정리했습니다. 쿠팡플레이 6월 3주 차 추천작을 소개합니다.

순례자들 in Spain

예능 / 넉살 / 조나단 / 코미꼬 / 한국 / 2025

조나단·넉살·코미꼬 축구에 진심인 세 남자가 스페인 라리가 현장을 직접 누비며 성덕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스페인 현지인과의 길거리 축구 한 판, 축구 선수 이상형 월드컵으로 불붙은 토크 대결, 그리고 대망의 레알 마드리드 경기 직관까지. 프레스 라운지에 입장해 선수 인터뷰까지 직접 진행하는 이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찐팬' 그 자체였다. 오는 13일(금) 저녁 8시, 공개되는 3, 4회에서는 라리가를 대표하는 월드클래스 스타, '앙투안 그리즈만'과 '세사르 아스필리쿠에타'가 등장한다. 레전드 선수들 앞에서 '찐축덕' 모드가 장착된 세 남자는 특유의 입담과 팬심 가득한 질문 세례로 인터뷰 현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든다. 성덕들의 환호와 유쾌한 토크가 폭주할 다음 에피소드, 이번에도 놓치지 말자!

'순례자들 in Spain'

파과

6/13(금) - 6/15(일) 무료 시청

액션 / 이혜영 / 김성철 / 연우진 / 김무열 / 신시아 / 김강우 / 한국 / 2025

“감정이 없던 킬러, 지킬 것이 생겼다”. 40년 넘게 감정 없이 인간을 제거해온 60대 킬러 ‘조각(이혜영)’. 조직 내 전설로 불리지만 점차 퇴물 취급을 받는 그녀 앞에, 오랜 세월 그녀를 추적해온 젊은 킬러 ‘투우(김성철)’가 같은 조직에 들어와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던 어느 날 ‘조각’은 자신을 치료해준 ‘강선생(연우진)’과 그의 딸을 통해 낯선 감정에 눈뜨기 시작하고, 이를 지켜보던 ‘투우’는 억누르던 분노를 폭발시킨다. 구병모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파과>는 강렬한 액션과 섬세한 감정선을 조화롭게 그려내며 완성도 높은 장르물로 주목받았고, 전 세계 10개국의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며 작품성과 예술성을 모두 인정받았다. 쿠팡플레이는 오는 13일(금)부터 15일(일)까지 단 72시간 동안 <파과>를 무료 제공한다. 와우회원이라면 누구나 쿠팡플레이 마이페이지 내 ‘쿠플 클럽’에서 해당 혜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적용 기간 동안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파과’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매주 수, 목 오후 11시 공개

로맨스 / 서현 / 옥택연 / 서범준 / 권한솔 / 지혜원 / 남기애 / 한국 / 2025

“그 밤 이후,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로맨스 판타지 소설 속 단역 ‘차선책(서현)’은 원래라면 남자 주인공 ‘이번(옥택연)’과 여자 주인공 ‘조은애(권한솔)’의 완벽한 서사를 빛내는 병풍일 뿐이었다. 하지만 현실 세계의 평범한 여대생이 어느 날 갑자기 그녀의 몸에 깃들면서,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한다. 주인공의 첫날밤을 실수로 ‘훔쳐버린’ 그 날 밤. 운명이라 믿었던 커플의 서사는 균열을 일으키고, 소설 속 세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웹소설 원작의 흥미로운 설정에 한국적 감성과 미장센을 더한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는 서현과 옥택연, 청춘을 대표하는 두 배우가 선사하는 달콤하고도 예측 불가한 케미스트리로 기대를 모은다.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글래디에이터 2

6/18(수) 공개 예정

액션 / 페드로 파스칼 / 폴 메스칼 / 덴젤 워싱턴 / 코니 닐슨 / 미국 / 2024

“나는 권력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 세계를 뒤흔든 명작 <글래디에이터>가 24년 만에 돌아왔다. ‘막시무스’의 죽음 이후 20년, 콜로세움의 피로 쓰인 전설이 다시 깨어난다. 한때 로마의 자유와 이상을 꿈꾸던 시대는 사라지고, 쌍둥이 황제 ‘게타(조셉 퀸)’와 ‘카라칼라(프레드 헤킨저)’의 폭정이 도시를 짓누른다. 그 어둠 속에서, 로마군에 의해 모든 것을 잃고 노예가 된 ‘루시우스(폴 메스칼)’가 새로운 반란의 불꽃으로 떠오른다. 강한 전투 본능과 억누른 분노를 품고 다시 콜로세움의 모래 위에 선 ‘루시우스’. 그는 끊임없는 결투 속에서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고, 한때 로마의 영광이 깃들었던 그 곳에 또 다른 이름의 영웅으로 서게 된다.

‘글래디에이터 2’

썸바디 썸웨어

©2025 Home Box Office, Inc. All rights reserved. HBO® and all related channels and service marks are the property of Home Box Office, Inc.

드라마 / 브리짓 에버렛 / 마이크 하제티 / 대니 맥카시 / 제프 힐러 / 미국 / 2021

“사는 게 버거운 날, 나를 웃게 해준 사람들”. HBO가 선보이는 가장 조용하고 아름다운 위로 <썸바디 썸웨어>. 캔자스 출신의 평범한 여성 ‘샘(브리짓 에버렛)’은 가장 의지하던 언니를 잃은 뒤, 삶의 중심을 잃고 점점 고립되어 간다. 하지만 우연히 만난 고등학교 동창 ‘조엘(제프 힐러)’과 함께 한 모임에 발을 들이게 되면서 잊고 지냈던 웃음, 열정, 그리고 노래를 다시 떠올리게 된다. <썸바디 썸웨어> 상실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들의 마음에 조용하지만 깊은 위로를 건네며 “나도 괜찮아질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일깨운다.

‘썸바디 썸웨어’

식스 핏 언더

©2025 Home Box Office, Inc. All rights reserved. HBO® and all related channels and service marks are the property of Home Box Office, Inc.

코미디 / 피터 크라우즈 / 마이클 C. 홀 / 프란시스 콘로이 / 로렌 앰브로슨 / 미국 / 2001

“죽음을 들여다보면, 삶이 보이기 시작한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피셔 가족. 가장 ‘내서니얼 피셔’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오랜 시간 집을 떠나 있었던 장남 ‘네이트(피터 크라우즈)’에게 삶의 방향을 다시 묻는 전환점이 된다. 결국 그는 차남 ‘데이비드(마이클 C. 홀)’와 함께 가업을 이어가기로 결심하고, 두 형제는 서로 다른 성향과 가치관으로 끊임없이 충돌하며 서서히 가족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식스 핏 언더’

위 오운 디스 시티

©2025 Home Box Office, Inc. All rights reserved. HBO® and all related channels and service marks are the property of Home Box Office, Inc.

미스터리 / 크리스 질카 / 마가렛 퀄리 / 크리스토퍼 에클리스턴 / 앤 도드 / 미국 / 2014

“총기를 쫓던 이들이, 부패의 중심에 섰다”. HBO가 <더 와이어> 제작진과 함께 다시 그려낸 범죄 실화극 <위 오운 디스 시티>. 총기, 마약, 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는 미국 최악의 범죄 도시 중 하나, 볼티모어. 혼돈을 바로잡겠다며 창설된 ‘총기 추적 전담반(GTTF)’은 곧 법 위에 군림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권력 남용과 조직적 부패는 도시 전체를 뒤흔든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정의를 위해 존재하던 시스템이 어떻게 타락하고, 그 대가가 누구에게 향하는지를 냉정하고도 집요하게 파고든다.

‘위 오운 디스 시티’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